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를”

대구지법 법관회의, 대법원에 건의키로

한 94. 9. 24

대구지법은 23일 오후 전체법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 결과 민법상의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 폐지와 전문재판부 설치, 즉 결심판제도 개선 등 10여개 항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용식 판사(가사1단독)는 ‘가족법 분야의 정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계혈족

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이 합리적인 근거를 잃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조항을 신설해 부모의 8촌 이내 혈족간에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논란을 벌여온 동성동본 금혼 폐지 주장이 법관회의에서 결의돼 대법원

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홍대선 기자

교통사고 최다발 부산서면

사상자는 여의도 가장 많아

지난 한햇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부산 진구 서면로터리(71건)였으며, 사상자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안보전시장 삼거리(1백명)에서 가장 많이 생긴 것으로